

蘆溪 朴仁老의 文學思想

金 基 卓

〈目 次〉

- | | |
|-------------------|-----------------|
| I. 序 論 | 3. 貧窮之節 |
| II. 16·17세기의 思想背景 | 4. 安貧樂道 |
| III. 蘆溪의 儒家思想 | IV. 蘆溪 詩歌의 自然認識 |
| 1. 修己治人 | V. 結 論 |
| 2. 忠孝愛國 | |

I. 序 論

蘆溪 朴仁老(1562~1642)는 朝鮮時代 명종·신조·인조朝에 生存한 人物로서 그의 詩歌文學을 중심으로 하여 文學思想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한 作家의 文學作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作家의 作品 속에 나타나 있는 思想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蘆溪의 文學을, 朴屺義 교수는 安貧樂道하는 道學思想, 憂國지성에 넘치는 忠孝思想, 산수승경을 즐기는 自然愛思想¹⁾이라 했고, 李相寶 교수는 道學思想, 忠孝思想, 安貧樂道, 自然思想²⁾이라하여 그의 文學의 중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蘆溪의 文學을 文面 그대로 분석하면 이 같은 평가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眞正으로 蘆溪의 모든 思想을 대변했다고는 할 수 없다. 蘆溪가 生存할 16·17세기에 걸쳐진 一生동안의 생활은 매우 복잡다난한 데다가 그는 儒敎와 性理 朱子學이 盛行한 時代에 태어났기에 그의 思想도 孔子의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詩歌文學을 읽어 보면 이들 思想이 외에도 中國의 典故를 인용한 伯夷의 採薇, 四皓의 隱逸, 沮溺의 耦耕,

1) 朴屺義著, 松江·蘆溪·孤山の 詩歌文學, 서울 현암사(1966), p. 352.
2) 李相寶著, 蘆溪詩歌研究, 서울 二友出版社(1980), pp. 41~49.

賈島의 採藥, 嚴子陵의 釣臺, 張擘의 養志, 太白 淵明의 樂天主義에 이르기까지 그의 恬淡하고 참 性情에 우월 광달한 정신은 시시각각으로 作品에 노출시켜 참된 儒家精神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蘆溪는 어려서 부터 儒家의 律已嚴正한 責任精神 속에서 修己治人을 준수하였고 忠君愛國의 精神이 싹텄으며, 마침내는 「貧窮之節」과 「安貧樂道」의 경지에 까지 이르렀으니 그의 思想의 根本은 완전히 儒家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蘆溪는 만년에 와서 날마다 四書三經과 性理學에 潛心하여 廢寢衣食할 정도로 儒家精神을 존중하고 實踐한 참다운 君子의 한 사람이었다. 蘆溪의 創作활동은 항상 고독한 경지를 걸으면서 朝鮮朝의 詩歌文學史上 江湖 敍景 詩歌文學의 한 페이지를 개척한 修道尙文한 儒者다.

본고에서는 蘆溪文學³⁾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思想을 검토하기에 앞서 性理學과 儒家思想이 만연하였던 16·17세기 朝鮮朝의 思想潮流와 時代背景을 알아 본 다음 그의 文學에 나타난 思想을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국문시가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60여수의 漢詩까지를 자료로 하여 朴仁老의 作品世界를 다시 조명하고 朝鮮朝 上大夫에 의해 儒敎의 이상적 삶의 양식으로 수용한 儒家思想과 自然의 意味를 찾고자 한다.

II. 16·17세기의 思想背景

朝鮮朝의 詩歌文學은 17C 중엽까지 형체상으로는 아무런 새로운 창조는 없었으나, 文學의 精神과 作家의 創作態度에는 증대한 變化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壬亂을 전후하여 정치·학술·도덕 및 人生觀 등의 여러 가지 사회환경에 따라 변화가 생긴 것이다. 즉 文學이 儒家的인 現實을 기반으로 한 社會的인 사명을 이탈하여, 실학적인 實用性을 기반으로 한 낭만적인 方向으로 독자들이 취향하고 있었다. 특히 16세기까지 中央政界에

3) 蘆溪 朴仁老 文學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先學에 의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으나, 詩歌에 대한 주석과 文集에 대한 정오문제가 主流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면서 蘆溪文學理論 연구에 주목할 만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趙潤濟 「歌客 蘆溪와 그 詩歌」(韓國詩歌史綱, 을유文化社 1954) 이후 朴晨義 「松江·蘆溪·孤山의 詩歌文學」(玄岩社 1966) 李相寶 「蘆溪詩歌研究」(二友 출판사, 1978) 崔雄 「한국고전시문으로 본 노계시가」(관악어문 연구 2집 서울대 1977) 朴箕錫 「蘆溪詩歌研究序說」(국어교육연구 36호 1980) 鄭炳憲 「蘆溪朴仁老의 自然觀」(語文論叢 7·8집 全南大 1985) 禹應順 「朴仁老의 “安貧樂道”意識과 自然」(韓國學報 통권 41호 · 志社 1985.)

진출한 士林들은 당시 지탄의 대상이었던 勳舊 세력층과 달리 中小地主의 기반 위에서 學과 行을 닦으며 청빈한 生活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이 기존세력과 대결하며, 浮沈을 겪는 동안 정치현실에서 물러나 安貧樂道하는 儒敎의 모습이 이 時代의 士大夫의 삶의 이상형으로 인식되어 왔다. 朝鮮 前期의 士大夫 文人들은 自身의 체면을 유지할 만한 경제기반과 사회적 위치를 지니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江湖歌道에 있어 自然은 人間과 一定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理想鄉⁴⁾을 文學에서 表現하였다.

그러나, 安貧樂道하는 儒家의 文學도 壬亂을 거치면서 變化가 오게 된다. 먼저 17세기 접어들면서 양반관료적 정치사회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지배층 내에서도 政治現實에서 소외된 鄉班階層이 형성된다⁵⁾는 것이다. 이러한 鄉班階層의 형성은 壬亂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함께 지배계층에 끼이지도 못하고 현실에서 소외된 지방의 士大夫로서 제반 규범과 가치의식을 고수하는 양반층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士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만한 田畝와 奴婢도 소유하지 못한 채 自然에 은거하여 몸소 農事일을 하면서 가난한 生活 속에서 立道修行하는 儒者도 있었다. 蘆溪는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 人物이다.

壬亂을 前後한 宣祖代는 장기간 戚族政治로 인하여 公權力이 극도로 위축되고 東西의 分黨으로 士林은 분열되고 無爲한 政爭으로 휘말리게 되면 귀양길에 오르게 된다. 또한 이때 士類들은 出世와 利祿을 目的으로 世上을 속이고, 賣名行爲를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간파한 蘆溪는 처음부터 경제적 기반 향상과 높은 벼슬추구는 관심밖의 일로 미루어 두고, 오직 儒家理念을 신봉하고, 聖賢의 經典을 섭렵하면서 궁핍한 生活에 만족하고 있었다. 蘆溪의 이러한 自然의 隱居生活은 壬亂 이후 官海生活을 단념하고 전원에 복귀하여 새로운 변신을 도모하고자 당대의 碩學인 鄭好信, 曹好益, 李德馨, 鄭述, 張顯光, 鄭延吉 등과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그들과 交遊뿐만 아니라 儒敎의 지식을 함양하는데 「無何翁傳」에 보면⁶⁾ 그의 처절한 과정을 엿 볼 수 있었다. 즉 蘆溪는 50

4) 鄭炳憲, 앞의 논문, p. 453.

5) 禹應順, 앞의 논문, p. 38.

6) 「翁聞 智異山下有 禰鳥叟者 博學多聞往訪之叟曰 九仞山中 一靈藥 萬古猶香世人 既不知 此中又安知有此藥也 採藥之道 凡有八條焉 苟不以其道採之 其可得乎 彼四皓隱者也…… 翁起謝曰 粗習弓馬 不事詩書 卜載窮虛徒切已矣」(蘆溪集·無何翁傳)

歲가 되어서 “男兒事業至大 文章猶爲餘事 矧弓馬耶?”라 하며 본격적으로 儒學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蘆溪가 弓馬보다 文章에 심취하게 된 것은 壬亂以後에 와서 당대의 碩學들과 交遊하는데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政治 社會 經濟 및 思想의 背景에서 作用되었을 것이다. 특히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의 짧은 기간동안에 內憂外患이 줄을 잇자, 戰爭의 참화와 기근,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田畠이 荒廢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離散家族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같은 큰 난리로 인하여 17세기에 오면 社會생활의 根本에 동요가 일어났으니, 이것은 모두 性理 儒學의 쇠락에서 淵源이 되어 政治에는 領導中心을 잃어 가고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百姓들의 의식도 변화를 가져 왔다. 그들은 옛부터 내려 오는 傳統의 윤리도덕과 性理 儒學으로 그들의 心靈을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知識人 士類들과 平民 계급을 막론하고 모두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였으니, 이에 老莊의 玄學이 기회를 틈타게 되자, 士大夫 중 은일자들의 일부는 받아 들이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당파의 대립과 반대파의 보복이 계속되는 동안 士大夫 文人들은 잘못 움직이면 곧 허물을 뒤집어 쓰고 화를 당하게 되었다. 16세기의 말은 士大夫 文人들은 이러한 士禍와 당파싸움에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이러한 紊亂의 정치현실 속에서 士大夫 文人들의 모든 사상이 동요를 일으켰고, 儒家思想이 변화를 가져와 道敎의인 老莊思想을 찾게 하였다. 老莊思想이란 본래 일종의 亂世의 산물이어서 政治的 압박과 人性的 실추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상이 요구한 바의 것은 個人的 깨끗하고 고요한 自由와 平等이며, 이것 이상의 다툼이 없고 욕심이 없는 원시의 自然狀態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진실한 人情을 추구함이 목적이다. 朝鮮朝의 士大夫文人들이 의식상에는 비록 적극적으로 現實에 반항하고 비평을 가하였으나 행동상에는 오히려 좌절을 경험하고, 소극적으로 現實을 도피하였다. 그래서 당시 士大夫 文人들의 이러한 생각은 오직 한 個人的 정신적 위안은 주었으나 政治社會의 개혁과 民生의 구제에 對하여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결국, 그당시의 정치현실에 소외된 士大夫 文人들에게는 그들이 지닌 宇宙觀, 政治觀, 人生觀에 이르기까지 老莊哲學이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落鄉하여 江

7) 蘆溪集 卷二 行狀條

湖自然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政治현실에 대해서는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고 오직 독서와 학문연구에 몰두하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自然에 隱遁하는 선비 가운데도 이 같이 정치현실에 패배를 당하고 親自然하여, 老莊的인 사상을 갖는 반면, 한편으로 처음부터 出仕하지 않고 성리철학에 관심을 갖고 “尊德性而道問學”하는 전형적인 성리학자로 있었다. 性理學에 관심을 갖는 儒者들은 항상 유교를 인간중심과 현세긍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유교의 원리 원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綱常)을 찾고 大義名分을 추구하였다.”⁸⁾ 이러한 사상은 이미 고려말 조선조 초기 많은 성리학자들이 殺身成義란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17세기까지도 성리학이 가지는 본래의 정신과 생명은 더욱 빛나고 있었다. 결국 조선조의 성리학이 지나는 선비의 가치는 事功에 있지 않고 義理에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17세기에 와서도 굽히지 않고 성리도학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성격을 중신토록 지키고자 노력한 儒者, 蘆溪 朴仁老를 들 수 있다.

蘆溪 朴仁老는 항상 유교의 원리원칙인 綱常을 일평생 몸소 행하면서 강조하고자 그의 詩歌作品에서 구체적으로 表現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대외와 명분에 어긋나는 일을 취하지 않고 生命의 위험이 있는 壬亂의 전쟁에서도 殺身成義하고자 하는 참다운 儒者의 길을 택하였다. 더구나 老年에 올수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당시의 碩學들을 찾아 그들과 교유하면서 더욱 유학에 심취하고 남은 여생을 忠孝愛國하고 安貧樂道하는 儒學者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Ⅲ. 蘆溪의 儒學思想

朴蘆溪의 文學이 儒家에서 나왔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학자는 없지만, 일찌기 朴晨義 교수는 그의 文集에 나타난 여러 評을 요약해서 말하였다.

翁은 일찍부터 德行이 자못 높아 日用 行事に 古人과 暗合하지 안한 바 없으며, 그의 性品:이 廉潔하기가 氷玉과 같고 天賦惇厚·性行至鈍·安貧樂道·孝友清白함을 들 수 있으니, 집에 들어서는 父母에게 孝誠이 지극하고 兄弟間

8) 金忠烈, 朝鮮朝 性理學의 形成과 그 正脈, 大東文化研究, 13집(서울·성균관대 大東文化研究院 1979), p. 13.

의 友愛가 두터워, 그의 詩歌에서도 그 性行이 나타나 往往 吟詠하는 詩에는 一字一句가 思親戀主의 뜻이 배어 있으며, 나아가서는 恭讓心이 敦篤하여 出入 時에 鄉里를 지난 때나 멀리 떠날 때에는 비가 와서 길이 질어도 말에서 내려 걸었다하니 可히 그 인격을 알겠다.⁹⁾

사실 蘆溪의 詩文에서는 四書三經의 내용을 많이 소개하였으며, 또 孔 孟 및 옛 聖賢들 尊崇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의 마음과 행동이 後年의 작품과 행적에서 자주 눈에 뛰어서 그의 思想이 儒家의 근본을 두고 있음을 짚게 하였다.

1. 修己治人

《大學》에서

예전에 밝은 덕을 天下에 밝히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집을 정돈하고 그 집을 정돈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아는 것은 극진히 해야 할 것이니, 아는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에 있다.¹⁰⁾

라는 말과 “天子로부터 庶人に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신의 덕을 닦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¹¹⁾라는 이야기는 바로 修己治人の 근본을 이야기한 것이다. 修己治人은 誠敬忠孝의 다른 表現으로서 蘆溪가 몸소 깨우치고자 存養省察의 규범으로 삼고 있었다. 蘆溪도 이러한 儒家의 思想傳統을 이어받아 마침내는 治國平天下하기 전에 먼저 誠敬, 즉 修身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유학공부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찍이 元聖(周公)을 보고 誠敬忠孝 네 글자를 받았는데 공이 말하길 “이는 神聖(孔子)께서 나의 昏蒙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다”하고 손수 成圖(孔子像)를 그려 벽에 걸고 自省의 자료로 삼았다. (그는) 이르기를 古人の 말씀이 너무 많아 老境의 정력으로 미치지 못할 일이다. 存省知行 등目的의 절실히 요긴한것을

9) 朴辰義著, 松江·蘆溪·孤山の 詩歌文學 서울 玄岩社, (1966), p. 356.

10)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大學)

11) 「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大學)

列書하고 그 綱目아래서 八德門과 人鬼關圖를 선정하였으니, 대개 만년에 用工(工夫)한 것은 中庸과 大學이 가장 많았다.¹²⁾

이것은 그가 一生을 修身 즉 誠敬忠孝에 힘썼음을 암시하고 있다. 誠敬忠孝하는 데는 格物致知와 三省이라는 수양 이 외에도 外的으로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經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는 中庸·大學 이외에도 날로 孔孟의 諸書와 朱子의 附註를 잠심하여 읽음에 침식을 잊어 버릴 정도로 工夫한 사람이다.¹³⁾ 四書는 바로 儒家의 경전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는 中庸, 大學, 論語 등 經典에서 誠敬忠孝의 지식을 吸取했음을 긍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誠敬忠孝로서 만족한 報國의 初心을 實現하지 못함을 애석히 여겨 “報國에의 初心은 끝내 헛되고 말았으니/서편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뿐이로다/부모에 효도하려면 깊은 뜻 또한 같지 못하고서/終身토록 그리워할 뿐이로다”¹⁴⁾라고 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함을 한탄했고, “무리를 떠나 속세를 벗어나 山中에 들어와/홀로 이끼끼 바위에서 낚시질하니 실버들에 바람이 인다/千年세월에 서백의 사냥간은 일이 없을 수 없으려만/가없게도 헛되이 물가에서 늙어 가는구나”¹⁵⁾라 하여 그가 만년에 蘆溪에 은거하면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헛되어 늙어 가는 자신의 처지를 비감해하고 있었다.

밤 한 그릇 먹는 시간에도 君父를 잊지 못했고, 그가 지은 詩文·歌詞에는 字字句句 모두 思親·憂國의 정성에서 나왔다. 한가한 밤에는 經傳을 공경하게 대하여 潛心玩味하여 流俗을 賤視하니 가히 맑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異汎에 구애받지 않고 못사람을 사랑하니 가히 온화하다 할 수 있으며 箠瓢가 자주 비디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 조금도 원망하거나 근심하는 모양이 없으니 가히 德行特立之上라 할 수 있다.¹⁶⁾

- 12) 『賞夢見元聖, 授以誠敬忠孝 四大字 公曰 此神聖開我昏夢也, 因手畫成圖 揭壁以自省 謂古人說話太多 非老境精力可及 採存省知行 等目之切要者列書, 綱下又撰入德門人鬼關圖 盡晚年用工 最在庸學上云』(蘆溪集 卷二 行狀).
- 13) 『夫子言 朝聞道 夕死可矣 豈可以年老自畫 日取鄒魯諸書 及紫陽附註, 潛心證讀 至廢寢食……』(蘆溪集 卷二 行狀).
- 14) 『報國初心竟歸空 西望涕淚而已矣, 烏烏深情亦未報, 終身儒慕而已矣』(蘆溪集, 安分吟).
- 15) 『離草脫人山中 獨釣苔磯細柳風 千載非無西伯獵 可憐虛老一溪翁』(“蘆溪卜居” 卷一詩).
- 16) 『一飯之頃 不忘君父 所著詩文歌詞 字字句句 皆出於思親憂國之誠 暇日敬對經傳 潛心翫味 鄙流俗 可謂清矣 而不苟異汎愛衆 可謂和矣 而不苟同箠瓢屢空而妄

구차한 생활을 하면서 충孝에 대한 돈독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는 현실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儒家에 대한 심취가 대단 하였다. 그는 유학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性理學에 대한 論究는 없었지만 유학의 폭넓은 지식을 가질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였다. 그것은 그의 文集을 보면 한편의 性理學의 이론은 없더라도 「中庸誠圖」「大學敬圖」「小學忠孝圖」「自警目」으로 제시된 도식에서 잘 말해주고 있었다. 이 도식들은 中庸·大學·小學의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가 책 읽은 내용을 상호 연관시켜 정리한 것에 불과 하기에 깊은 이론적인 해석보다도 자기 자신이 평소 생활의 실천적인 면에 중점두고 있었다.¹⁷⁾ 이같이 그는 가난 속에서도 儒家 聖賢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50歲 이후에 와서도 “男兒事業至大 文章猶爲餘事 矧弓馬耶”¹⁸⁾라 하며 鄒魯諸書와 紫陽附註를 익히며 儒學工夫에 몰두하였다. 한편 당시 영남의 大儒였던 寒岡 鄭述(1543~1620)와 旅軒 張顯光(1554~1637)을 찾아가 배움을 요청하고 晦齋 李彥迪(1491~1553)이 거처 하던 獨樂堂을 방문하고 道學者로서의 풍모와 덕행을 추모하였다. 이와 같이 蘆溪는 人生 後半期에 와서 道學工夫에 대한 불타오르는 정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蘆溪의 儒家에 대한 향학정신을 張旅軒은 “無何翁은 늙고 病들었으나 發憤忘食하여 大人의 道에 뜻이 있으니 마땅히 東方未有的人家”라하고 “늙어갈수록 더욱 장하고, 강할수록 더욱 견고하니 진실로 덕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¹⁹⁾라하여 존경과 흠모로서 蘆溪의 德行을 높이 칭찬하였다. 蘆溪의 道學工夫는 大學의 八目 -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 과 中庸의 九經 - 修身, 尊賢, 親親, 敬大臣, 體群臣, 子庶民, 末百工, 柔遠人, 懷諸侯, =誠 = 을 근간으로 하여, 儒家에서 중요시하는 “誠敬忠孝”를 좌우명으로 삼고 “仁義”에 접근하였다. 蘆溪는 “仁義”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孔子가

如也, 少無怨戚之態 可謂獨行特立之士矣」(蘆溪集 卷二 부록 巡相請褒狀啓)

17) 도식의 예로서 「小學忠孝圖」를 보면 忠의 하위 덕목으로 退思補過匡救其惡 進思盡忠 將順其美로, 孝의 하위 덕목으로 敬身·居致敬·養致樂·病致憂·喪致哀·祭致嚴으로 설정하였으며, 「自警目」은 八德門과 人鬼關을 설정하여, 끝내는 誠敬忠孝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18) 蘆溪集 卷二 行狀.

19) 「無何翁老且病 而能發憤忘食 有志大人之道 宜其爲振東方未有之人家也…… 老當益壯 而窮且益堅 苟非好德之實 能如是乎」(蘆溪集 卷二 無何翁傳 九(山記跋))

말한 “朝問道 夕死可矣”²⁰⁾를 마음깊이 새기면서 大人의 道에 따르고자 노력하면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²¹⁾ “仁義”와 “誠敬·忠孝”는 蘆溪로 하여금 제2의 生命으로까지 비약하게 해서 “忠君愛國”과 “貧窮之節” 그리고 “安貧樂道”의 경지에 까지 이르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蘆溪의 사상도 젊은 시절 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誠敬忠孝를 지표로 삼으며 儒家에 젖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忠孝愛國

忠孝는 朝鮮朝의 통치체제의 근간으로 하는 봉건적 宗治制度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孔子는 <論語>에서 말하기를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 하여 儒家의 엄격한 政治制度는 孝弟를 기초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修身 - 齊家 - 治國 - 平天下의 과정은 곧 孝에서 忠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때 이 과정에 적극 동참하는 일은 엄격한 儒家精神을 받들어 忠주관년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蘆溪는 전쟁후 天下에 道가 없음을 느끼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忠孝愛國의 정신을 가지는 마음은 조금도 흠으러짐이 없었다. 이 忠孝愛國을 위해 먼저 연시조 「五倫歌」를 창작하며 三綱五倫을 선양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아비는 나으시고 어비는 치유시니
 못시岡極이라 감홀길이 어려우니
 大舜의 終身誠孝도 못다한가 향노라. (父子有親)

뽕恩이 岡極홀줄 사름들아 아나스나
 뽕恩곳 안니면 萬民이 살로소나
 이몸은 岡極홀 뽕恩을 감고말려 향노라. (君臣有義)

위의 예는 「五倫歌」 25首중의 노래로서 述光景이 아닌 鋪陳의 方法을 주로 하는 立議論의인 詩歌²²⁾다. 이러한 立議論의인 意境에 집착하여 忠孝를 바로 설명하면서 직접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였지 조금도 주저하거나 도피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鄉儒, 郡守巡相 李溟 등이 그에게 표상을 청

20) 「仁義人也 仁居安宅 義山正路 常誦夫子之言 而責於己 日朝問道 夕死可矣」(蘆溪集 卷二 無何翁傳九閉山記跋)

21) 「夫子言 朝問道夕死可矣 豈可以年老自盡」(蘆溪集 行狀)

22) 崔雄 「韓國古典詩論으로 본 蘆溪詩歌」 관악어문연구 2집 서운대 1977, pp. 145~146.

하는 글 가운데에 보면

밤 한끼 먹는 시간에도 君父를 잊지 않고, 지은 詩文, 歌詞는 字字句句 모두 思親 憂國의 정성에서 나왔다. 한가한 날에도 經典을 공경스래 대하여 潛心 甄味하여 流俗을 賤視하니 가히 맑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異汎에 구애받지 않고 못사람을 사랑하니 가히 온화하다 할 수 있으며 簞瓢가 자주 비더라도 마음을 편히 가져 조금도 원망하고 근심하는 모양이 없으니 가히 獨行特立之士라 할 수 있다.²³⁾

라고 하여 나라에 대한 忠誠과 志操, 그리고 孝誠을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표현하였다. 그의 구차한 생활상과 忠孝愛國에 대한 돈독함을 강조한 내용을 鄭好信의 贈詩에도²⁴⁾ 나타난다. 사실 蘆溪의 이같은 忠孝觀은 壬亂전쟁에 참전하고 지은 歌辭 〈太平詞〉와 〈般上嘆〉에서 그의 忠孝憂國의 至誠을 알수 있다.

時時로 먼이 드러 北辰을 보라보며
傷時老淚를 天一方의 디이는다
吾東方 文物이 漢唐宋에 나라마는
國運이 不辛하야 海醜兇謀애 萬古羞을 안고이서
百分에 흥 가지도 못 시서 빈려거든
이 몸이 無狀흔들 臣子ㅣ 되야 이서다가
窮達이 길이 달라 몬 뵈옵고 늘거신들
憂國丹心이야 어니 刻애 이출닌고. 〈般上嘆〉

忠孝憂國은 蘆溪의 전생애를 지켜 주는 이념적 지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결국 蘆溪는 君父에 대한 忠孝가 곧 人間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人倫임을 실컷 강조한 나머지 그의 詩歌작품에 투영시켰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武人으로서 출발 당시부터 가진 憂國至誠도 소홀히 할 수 없는 蘆溪의 한결같은 愛國愛族 精神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것을 治國平天下를 위해 충성을 바치고자 하였다. 蘆溪의 晩年에 지은 〈蘆溪歌〉²⁵⁾에서

23) 「一飯之頃 不忘君父 所著詩文歌詞 字字句句 皆出於思親憂國之誠 暇日敢對經傳 潛心甄味 鄙流俗 可謂清矣 而不苟異汎愛衆 可謂和矣 而不苟同簞瓢屢空而晏如也 少無怨戚之態可謂獨行特立之士矣」(文集 卷二, 巡相謂褒狀啓)

24) 「欲識此翁心上事 憂君憂國不憂貧」(文集 卷二, 又呈七言律詩三首中)

25) “이힘이 뉘힘고 聖恩이 아니신가/江湖에 들너신들 憂君一念이야 어니 刻애

도 君恩에 대한 忠節과 높은 氣概는 70세가 넘어서도 변치 않았다. 이러한 蘆溪의 忠孝愛國하는 마음가짐은 당대의 지배사상인 朱子學의 德目으로서 지켜져야 하지만 그 보다는 당대의 유학자들과 고유하면서 느끼고 깨달음에서 蘆溪의 儒家思想은 더욱 돋독해졌다고 본다.

3. 貧窮之節

朴仁老是 가계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高祖 英孫은 弘文校理, 掌樂院正, 豐川郡守, 曾祖 珽은 集賢殿參奉을, 祖 允淸은 教授를, 父 碩은 承仕郎承議副尉의 벼슬을 하였지만 田莊이 제대로 所有하지 못한 채 蘆溪가 태어났을 때는 집안 경제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우선 蘆溪 자신이 文科에 급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政界에 진출할 수 있는 파벌도 없었고, 정치적 부침도 없이 겨우 武人으로 助羅甫 萬戶직책으로 그쳤다.

그는 〈陋巷詞〉에서 처럼 봄소 발을 갈았지만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田莊도 없어 그의 양반신분마저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웠다.²⁶

陋巷 김픈 곳의	草蓆을 지어 두고
風朝雨夕에	석은 덥히 허되야
서흠 밥 닷흠 粥에	煙氣도 하도 할사
살레인 然冷애	빈빅 쇠일 뿐이로다
生涯 이러흐다	丈夫 뜻을 옮길닌가
安貧一念을	제을망정 품고이서
隨宜도 살려 흐니	남모조차 醜醜흐다
그울힌 不足거든	봄이나 有餘흐며
주머니 뷔엇거든	瓶의라 담겨시라
貧困호 人生이	天地間의 나뉘이랴
飢寒이 切身흐다	一丹心을 이질닌가. <陋巷詞>

그에게도 다만 양반이라는 신분상의 명목 뿐이었고 처세의 方法은 儒學者들과 交遊하면서 관념적인 유교덕목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가난한

이 줄은고/時時로 버리드러 北辰을 보라보고/눈모리는 눈물은 天一方에 디이나다”(蘆溪歌)

26) 成範重, “蘆溪文學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94집 국어국문학회(1985, 12), p. 222.

환경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貧窮之節을 지키며 安貧一念으로 隱遁 속의 風流로 지닌 여유있는 모습은 발견할 수 있다.

蘆溪도 中年以後에 와서는 孔子의 “固窮之節”의 정신을 받아 그의 一生의 신조로 삼았던 것이다. “固窮” 즉 “貧窮”이란 말로는 아마 쉬울지 모르나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어서 보통 인간의 意志力을 초월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人品의 높고 낮음과 君子와 小人의 분야는 모두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儒家의 基本觀念이기도 하다.

“貧窮之節”은 蘆溪의 一生中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자신이 처한 생활과 자신이 기대하는 생활의 불일치를 맞 보면서 貧窮之節을 지키는 소극적인 것으로 그의 中年의 詩歌에서 나타난다. 躬耕稼穡하고자 하나 農牛조차 없이 빌리러 갔다가 羞侮만 당하고 돌아와서는 자신의 가난과 野薄한 世情을 恨歎하게 된다.

아산은 저 소위는 벗 보님도 도출세고
 가시영건 목은 밧도 容易케 갈린마는
 虛當牛墾에 슬피엄시 걸러고야
 春耕도 기의기다 후리치 더더우자.
 江湖 혼 숨을 꾸언지도 모리더니
 口腹이 爲累야 어지버 이저셔다.
 瞻彼淇澳홀터 綠竹도 하도 할사.
 有斐君子들아 님터 흥나 빌려스라. - 陋巷詞 -

이것은 貧窮之節이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려고 하였으나 상황은 그렇지 못하였다. 農牛조차 빌리지 못하자 “가시영건 목은 밧도” 그대로 썩개치게 되는 그도 “貧窮”이라는 것이 본래의 신조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왔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詩歌를 지은 것도 誦주림을 참다 못해 일찌기 壬亂時 鄭世雅의 휘하에서 의병으로 참여하고, 1599년 武科에 급제하여 守門將 宣傳官, 助羅甫 萬戶 등의 벼슬을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선배 老政客들을 찾아 다니면서 學問을 논하고, 그 人品에 힘 입어 宗정에 천거까지 하였다.

이로 보면 “貧窮”의 生活이란 그가 실제로 嚮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하나의 측면으로 蘆溪가 겪은 “貧

窮”은 가난을 지키고 경험한 것이 自己의 人生태도라는 것을 밝힌 점이다. 다시말해서 그는 “貧窮”을 긍정한 것으로 그가 老年에 歸隱한 後의 作品에서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도천의 시내 위의 무하옹은
 쩌그러진 집 몇 칸 뿐이로다.
 백발이 듬성듬성 양 귀 밑을 덮으니
 다만 스스로 슬퍼할 뿐이로다
 긴 수염장이 좋은 달이나 오지를 앓고
 맨발의 계집종 하나 뿐이로다
 처량한 빈 집에 적적히 사람도 없는데
 어린 제비는 쌍쌍이 날아들도다.
 내 몸에 걸친 옷이 어떤가 하니,
 백 군데나 기워서 누더기 옷이로다
 비릇 헤어진 옷이나 무슨 걱정 있으랴?
 다만 오래 취할 일을 바랄 뿐이로다.
 대장부가 어찌 옷과 음식만 생각하랴?
 저마다 지닌 대로 지내면 되리요다.²⁷⁾ -安分吟-

즉 老年에 와서 貧窮之節의 信念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孔子가 말한 “君子固窮”²⁸⁾이라는 절개속에 永住하여 선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儒家의 貧窮生活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먹음에 배불음을 구하지 말라고 성인도 일렀으니 / 굶주림을 면하면 그 뿐이로다 / 궁벽한 마음에 쓸쓸히 못남을 달게 지키며 / 그 절개를 굽히지 않을 뿐이로다”²⁹⁾라 하여 “貧窮”이 그의 절대적인 信條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安分吟>詩는 <太平詞> <陋巷詞> 詩歌에 비해 시간상으로 거리가 있는 作品이어서 호방한 기개는 발견할 수 없으나 굶주림의 극한 상황에 있어서는 壯年에 비해 그의 “貧窮”의 절개를 더욱 분

27) 「道川川上無何翁 百屋穀間而已矣。白髮蕭蕭被兩鬢 但自悲歎而已矣。一奴長鬣走不還 一婢赤脚而已矣。淒涼虛室寂無人 乳鷺雙飛而已矣。一身裘褐知何計 百結懸鶉而已矣。雖然弊衣何足憂 但願長醉而已矣。丈夫寧謀衣與食 任其所有而已矣。」(安分吟)

28)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論語)

29) 「食無求鉤聖所云 僅免飢渴而已矣。
 窮巷蕭條甘守拙 不易其介而已矣。」(安分吟)

명히 하였다. 蘆溪의 이러한 “貧窮之節”은 결국 그로 하여금 “安貧樂道”의 生活로 이어지게 한다.

4. 安貧樂道

蘆溪의 一生은 平生 가난하게 生活하였다. 이러한 가난한 生活은 누구나 비참하고 서글퍼게 생각 할 것이나 蘆溪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히 하고 理致를 터득했으니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는 平素 孔子를 존경하고 仰慕하였으니 蘆溪는 儒者로서 孔子思想에 심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蘆溪는 孔子의 “安貧樂道”思想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 孔子의 “安貧樂道”를 소개하는 文句는 《論語》의 여러 편에서 찾아 볼 수 있다.³⁰⁾ 즉, 蘆溪는 孔子의 “安貧樂道”의 生活을 본 받아 富貴貧賤에 마음을 얽매이지 않음이 하나의 뜻 있는 선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생활이 가난하여 고생스러움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安貧 속에 이치를 터득한 것이다.

재주 적어 비록 하늘과 사람을 배우지는 못했으나
바라는 바는 안빈낙도하는 사람을 본받고자
만약 천부의 마음을 다잡아 간직할 수 있다면
어찌는 세상 시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리오³⁰⁾

위 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난에서 나온 이유에서라기 보다 <安分吟>에서 추앙하는 顏回와 子路의 安貧樂道하는 儒者像을 본받고자 원하였다. 즉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동질감과 함께 顏回 子路가 가난 속에서 행한 樂道의 면모는 그가 지향하고 목표로 삼는 최선의 길이었다.

蘆溪의 <安分吟>을 보면 그의 이러한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성인의 문생에 그 어질다 하는 이는
안자의 사로 뿐이다 하는 도다

30) 「立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以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飯蔬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論語)
「才疎雖未學天人, 願效安貧樂道人 苦使操存天賦性, 寧憂浮世是非人」(文集 卷
· 奉呈細谷亭主人 三首中)

내가 어리석으니 어찌 그들을 미치랴?
 다만 안빈하기를 바랄 뿐이로다
 대대로 이어온 일에 무엇이 있으랴?
 대와 매화 술과 녹화를 기르는 일 뿐이로다
 여기의 생활이 담담하기 이같으니
 무명이블 명아주 국에 만족할 뿐이로다.³²⁾

蘆溪의 마음과 행동을 대변하는 作品으로 自己의 生活實像을 그리면서 안빈낙도하는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蘆溪가 생존한 당시 壬亂 속의 亂世를 등지고 은퇴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은퇴는 대부분 하는 일 없이 끝났지만, 蘆溪는 몸소 밭을 갈며 樂道를 했으니 그의 취향은 生産의인 은퇴라 하겠다. 동시에 蘆溪는 信念과 節介를 지킨 당시 은퇴한 선비들과 故人이 된 성리 학자들의 남긴 덕을 높이고 追仰하였다. 그 결과 他人의 입장을 대신하여, 혹은 타인을 위해 지은 作品을 통해 蘆溪 자신의 꿈을 表現하였다. 특히 〈立巖曲〉에서는 장여현이 자연승경속에서 즐기는 유유자적한 樂은 蘆溪의 평소 희망이요, 소망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蘆溪는 생활의 빈궁과 自然의 애호 사이의 갈등에서 유교의 실천 이념인 安貧樂道의 길을 늦게나마 택했던 것이다. 즉 「君子固窮」이나 「憂道不憂貧」은 바로 儒家의 人生哲理로서 蘆溪는 〈安分吟〉에서 받아 들여졌다고 본다. 이러한 哲理를 순수하게 받아 들여 實踐에 옮긴 蘆溪의 文學 대부분이 儒家思想에 근거를 두고 출발점을 삼았으며, 또 儒家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蘆溪의 안빈낙도의 적극적인 실천은 궁핍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이 신봉하는 儒家理念과 이상적인 儒者의 삶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이다.

IV. 蘆溪 詩歌의 自然認識

儒家에서 최고의 道德의인 理想은 ‘天人合一’에 있다. 蘆溪가 염원하는 ‘誠敬’의 ‘誠’은 天道를 말하고, ‘敬’은 天道의 理想에 접근하려는 人間의 努力을 말한다. 따라서, 聖人の 德을 본받고자 하는 근본도 誠敬之心에서

32) 「所以聖門稱其賢 顏子子路而已矣 顧余愚庸何敢乃 只願安貧而已矣. 也傳餘業有何物, 竹梅松菊而已矣 西湖無主栗里空 今我獨愛而已矣. 這裏生涯淡如許 布被藜羹而已矣」(安分吟)

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蘆溪는 誠敬을 平生工夫로 생각하여 먼저 天道를 알고자 存養省察로 獨學하면서 先賢과 당대 儒學者를 찾아 배우기를 요청하였다. 한편 蘆溪는 이러한 과정에서 詩歌를 창작하였는데 歌辭에 있어서는 대부분 代作이거나 혹은 先賢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느낌을 읊은 것이다. 7편의 歌辭作品은 한결같이 誠敬, 忠孝를 반복, 강조하는 儒家的인 일면을 보여 준다. <太平詞>, <般上歎>은 愛國憂君의 至誠과 忠孝를, <莎提曲>, <陋巷詞>, <嶺南歌>는 聖賢學問의 正道를 강조하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獨樂堂>, <蘆溪歌>는 大自然의 景物을 통하여 得道와 山水之樂을 누리하고자 하는 뜻과 함께 安貧樂道를 중시하는 숨은 뜻을 담고 있는 敘景歌辭³³⁾ 하겠다. 다른 다섯 작품보다 自然景物을 통하여 安貧樂道를 강조하는 <獨樂堂>, <蘆溪歌>를 중심으로 하여 自然의 寓意性을 밝히 보고자 한다.

<獨樂堂>은 蘆溪가 武夫에서 隱退한 후 重道精神에 뜻을 두면서 平素에 欽仰하던 晦齋先生의 遺蹟을 往尋, 堂 周圍의 自然景物의 形勝과 先賢의 어진 情을 읊은 敘景歌辭다. 李晦齋는 退溪, 南溪와 함께 主理的 理氣哲學을 기반으로 하는 嶺南의 道學者다. 獨樂堂 주위의 幽閑景致 속에서 吟風詠詩하는 李彥迪의 생활은 바로 山水之樂 속에 安貧樂道와 誠敬에 主一하는 태도로, 곧 蘆溪가 염원하는 修道의 삶이다.

‘獨樂’은 晦齋先生의 書堂名이지만 원래는 “窮則獨善其身”하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곧, 이것은 儒家的 自己涵養 操身에 힘쓰며 安貧樂道의 理想에 충실하고자 하는 蘆溪의 성격과 부합한다.

蘆溪는 당대가 道를 실천할 수 없는 亂世는 아니지만 壬亂 후부터 심해지는 당쟁의 현실 속에서 道學的 理想인 誠敬思想을 통하여 ‘獨樂’과 ‘安貧樂道’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獨樂堂>은 단순한 先聖의 추모에 그친 것이 아니고 獨樂堂 周圍의 形勝과 自然美景도 아울러 나타낸 敘景歌辭다.

한편, <蘆溪歌>도 蘆洲의 山水自然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心懷를 읊은 敘景歌辭다. <獨樂堂>과 함께 다 같이 自然을 통한 得道와 山水樂을 추구하는 동시에 修己治人하는 즐거움을 表現했다. 이러한 그의 自然에 대한 태도는 그동안 先賢을 추모하고 그들의 遺蹟을 探尋하는 과정에서 儒家思想의 빈곤을 채워 주는 寓意的 表現으로 利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張旅軒의 立岩精舍의 生活을 보고, 그의 思想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완

33) 拙稿 敘景歌辭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論, 1988. 2, pp. 14~41.

전히 自然景 속에서 物我一體의 상태에 귀착할 수 있었다.

朴仁老의 自然認識은 先代의 龔巖, 俛仰亭, 退溪 등 政治現實과 갈등 속에서 은퇴하여 자연을 통해 우주만물의 근원적 조화를 表現한 士林들과는 다르다. 蘆溪의 親和自然은 避世가 아니라 無爲自然으로 脫貧困의 空間이자 山水之樂 속에 安貧樂道하는 곧, 자기의 信念을 實現하게 하는 유일한 安住處다. 그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주는 修己治人의 대상물로서 自然을 찾았기 때문에 隱士之風은 만년에 와서야 느낄 수 있었다.

許由, 巢父나 嚴子陵, 沮溺, 李太白, 陶淵明의 상징적 의미는 傳統的으로 인식된 隱逸한 山林處士의 處世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故事引用이라기보다 오히려 儒家의 意味의 寓意性을 띠고 있다. 만년에 지은 <蘆溪歌>는 지난 날의 생활을 정리하고 先儒들도 자기 곁을 영원히 떠나 버린 상태에서 오직 혼자만이 자연 속에 한가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逼真하게 묘사하고 있다. <獨樂堂>과 <蘆溪歌>에서 특징적인 사실은 閑寂하고 靜謐한 自然世界에 놓여 있는 자신의 처지를 曲盡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가 즐기고 있는 것은 自然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함과 自然의 理致에 따라 변하는 山水美景이다. 여기서 그는 만물이 變化해 가는 實體를 포착하게 되고, 그 변화를 포착하는 데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道法自然의 이치와 즐거움을 眞率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蘆溪의 自然親和는 <獨樂堂>, <蘆溪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아울러, 審美的인 관찰력과 함께 自然에 대한 安住의 애착이 짙게 나타난다. 그것은 자신이 걸어 온 길과 비교해 볼 때, 前期의 武夫期보다 後期에와서 重道精神을 강조하면서 先賢들의 생활을 흠모한 것과 같다. 늦게나마 儒學에 潛心하고 先儒의 遺蹟을 찾고 當代 巨儒들과 從遊하면서 그들의 山林處士의 삶을 憧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蘆溪가 만년에 창작한 <蘆溪歌>에 나타나는 자연의 歸依는 정치적인 避世보다 道家的인 親自然으로서 無何翁의 삶을 누리하고자 한 것이다.

詩的 視覺으로 照明해 보면, 蘆溪의 사상은 한 마디로 性理學的인 '誠敬忠孝'이다. 그는 一生을 걸고 이 誠敬·忠孝를 讚美, 探究하고, 安貧에 집착하여 결국 自然에 安住하려고 했으며, 誠敬에 一心專念하고자 無盡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誠敬을 논함에 있어 作品마다 安貧과 忠孝精神을 顯揚한 것도 따지고 보면 愛國愛君하는 儒者的인 意志의 表現이다. 즉 生涯 前半期에 出仕하여 事君報國하는 愛國忠情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官에서

물러나 田園에서 先賢을 찾고 讀書하며 立學行道하며 蒼生을 올바르게 善導하려는 誠敬思想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정신은 곧 당시의 混濁한 世界에서 淸淨한 세계로 志向하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만년에 지은 〈蘆溪歌〉에서 자신의 儒家的인 純粹를 確保하기 위해 끊임없이 存養省察하고 誠敬하며, 自然의 敍景을 통해서 心象의 純粹를 노래하고 있다.

蘆溪歌辭는 대부분 述光景的인 影描의 表現보다 立義論的인 鋪陳의 표현이 위주가 되고,³⁴⁾ 간간이 自然의 敍景에 興을 托하면서 儒家的 意志를 나타낸 것이 특색이다. 즉 蘆溪의 詩歌는 靜觀을 生理化해서 安分과 隱逸과 自然의 敍景을 통하여 逃避 아닌 達觀의 경지로서 天地와 自然을 自我와 一體가 되도록 表現하고 있다.

V. 結 論

儒家的 이념과 性理學이 바탕이 되어 生活倫理가 확립되었던 조선조 시대에 태어난 朴仁老의 文學思想은 忠孝와 誠敬이라는 儒家思想이 本源을 이루었다. 그는 行狀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一截越越武夫, 後一截乃讀書修行之儒”³⁵⁾라하여 50歲 이전까지 忠孝精神으로 修己治人에 愛國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고향에 돌아와 儒學에 몰두하면서 전형적인 儒者의 모습을 安貧樂道를 통해 誠敬思想으로 일관 하였다. 儒家의 安貧樂道와 道家의 隱遁意識은 모두 그의 詩歌中에서 찾을 수 있고, 심지어 伯夷의 採薇, 沮溺의 耦耕, 四皓의 隱逸 등 복잡한 사상들이 모두 그의 性情 속에서 용해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남기고자 한 것은 孝道, 友愛, 淸白이며, 아울러 일생 동안 추구한 것은 修己治人의 이상을 실현하는 儒者의 삶의 모습을 밝히고 있었다. 따라서, 忠孝를 위시한 儒家의 실천윤리를 자신의 일상생활 지침으로 신봉했으며, 엄숙한 儒者의 모습은 일생을 통해 계속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蘆溪가 추구하는 安貧樂道는 궁핍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이 신봉하는 儒家理念과 理想的인 儒者의 삶을 동시에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택한 것이다.

한편 그가 詩歌作品 속에서 발견한 山水之樂은 自我에서부터 나오는 心的 갈등이나 불안의 방해 없이 自生한 靜觀에서 나온 天人合一의 內的 즐

34) 崔雄, 앞의 논문 pp. 162~165.

35) 蘆溪集 卷二 行狀條.

거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自然의 敍景을 통해서 道德의 品性이나 儒者의 規範性을 發見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自然이 포함하고 있는 本質을 올바로 관찰하여 自然 그 자체에서 성리학의 得道와 山水之樂을 누리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가 自然에서 素朴한 山水之樂을 누리하고자 하는 뜻은 否定的인 世界에 대한 일시적 避世의 뜻을 나타내었다기보다는 聖賢學問의 正道를 살피고 安貧과 修道로서 一生을 마치고자 하는 一念을 寓意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진실된 山水之樂을 敍景하고 自然世界의 無何有之鄉을 맛보는 것은 一切의 欲을 버리고 自然에 순응 안주하면서 誠敬을 지니했기 때문이다. 즉, 一切을 버리고 寂靜에 귀의한 世界는 自然의 敍景을 통한 明證과 敬虔이 따르는 心像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蘆溪도 自然의 敍景을 노래하면서 道學의 오묘한 이치를 寓意적인 의미로 儒家의 입장에서 自然景物을 해석하였다고 생각된다.

蘆溪는 儒家의 영향을 받아 엄정한 律己精神과 짙은 倫理觀念이 있었지만 오히려 추호도 禮敎에 속박되지 않았고, 道家의인 人生태도가 있었지만, 조금도 방탕하거나 오만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그의 이 같은 독특한 사상과 생활태도는 그의 초월된 人生의 규범이 되어 우리나라 文學史에서 불후한 가사문학의 한 페이지를 형성시켰다.